

# “매일 출근...CEO형 회장 되겠다”

## 조중연씨, 대한축구협회장 당선

조중연(63)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정몽준(58)회장의 뒤를 이을 제51대 축구협회장에 올랐다.

조중연 부회장은 22일 오전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뽑는 투표에 참가한 전체 대의원 28명 중 18표를 획득, 10표를 얻은 허승표 씨피플릭스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조중연 신임 회장은 2012년까지 4년간 축구협회를 이끈다. 반면 허승표 후보는 지난 1997년 경선에서 25표 중 22표를 얻은 정몽준 회장에게 완패한 데 이어 또 한 번 고배를 들었다. 하지만 중앙대의원 5명과 산하 7개 연맹 대부분이 조중연 후보를 지지한 상황에서 10표를 얻은 건 선전했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협회에서 간빠가 굵은 장점

을 앞세워 '포용을 통한 화합과 발전을 향한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허승표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한국 축구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 ▲심판 자질 향상 및 독립성 확보 ▲시·도협회 행정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초·중·고교 주말 리그제 정착 ▲협회 예산 구조 안정 및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약속했다.

조중연 회장은 “회장으로 뽑아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4년 동안 매일 협회에 출근하는 첫 회장이 될 것이다. 회장실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선·후배들의 고견을 듣겠다”면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지지했던 분이 나



대했던 분을 모두 끌어안겠다.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한국 공약으로 제시한 10대 실천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 조중연은 누구

조중연(63) 신임 대한축구협회장은 '축구 명문' 중동고(1965년 졸업)와 고려대(1969년 졸업) 출신으로 1992년에 축구협회 이사직을 통해 협회 행정에 발을 들여 놨다.

1965년 고려대 시절 청소년 대표로 뽑혀 태극마크를 달았던 조 회장은 고려대 코치(1973~1974년)와 울산 현대 코치(1983~1985년), 울산 현대 감독(1985년~1986년), 중동고 감독(1990년~1994년) 등을 맡으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

### 선수·코치 등 현장 경험 풍부 '행정의 달인'

다. 또 1989년부터 KBS 축구해설위원을 맡아 10년간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05년에는 국회 문화관광위 축구협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뒤 회계결산 부정 의혹 등 재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자 김호곤 현 울산 현대 감독에게 전무를 맡기고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축구협회가 그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회장직을 그대로 맡아 전 전 회장의 조인자 역할을 해오

면서 '포스트 정몽준'의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왔고, 마침내 축구협회 행정에 입문한 지 17년 만에 수장에 오르게 됐다. 가족은 부인 박선숙 씨와 2남.

▲충청북도 보은 출생 ▲중동고-고려대 사회학과 ▲울산 현대 감독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1998년 프랑스월드컵 대표팀 단장 ▲2002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2007 FIFA U-17 세계 청소년월드컵 조직위원회 부회장 ▲체육훈장 맹호장

### ■ 막 내린 정몽준 시대 16년

16년간 한국축구를 이끌었던 정몽준(58)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22일 조중연(63) 신임 회장에게 지휘봉을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1993년 축구협회장에 취임해 네 번째 임기까지 마친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숨 막히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점에서 행복한 16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되돌아봤을 정도로 지난 16년 동안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했다.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 한국 축구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이끌어

### 월드컵 개최 등 업적...장기집권에 내부 갈등도

냈고, 태극전사들의 4강 신화를 포함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은 그의 대표적 업적이다. 월드컵 개최로 축구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냈다. 4강 신화의 요람이 된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가 2001년 완공됐고 천안과 목포, 창원 세 곳에는 축구센터가 들어선다. 축구회관, 월드컵기념관도 건립됐다.

정 전 회장은 1994년 FIFA 부회장에 선출돼 국제무대에서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중추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터라 업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 전 회장이 '장기 집권'하면서 축구계

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을 보좌했던 조중연 신임 회장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포용을 통한 화합, 발전을 향한 변화'를 기치로 내건 것은 이 같은 축구계 현실을 잘 반영한다. 정 전 회장이 정치인이다보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 축구를 이용한다는 골지 않은 시선도 늘 따라 다녔다. 축구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7명에 포함된 정 전 회장은 임기를 마친 뒤에 하기로 했던 흥상 제막식을 지난해 협회 창립 75주년 기념 행사 때 앞당겨 치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 날아라! 스노보드

22일 강원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열린 2009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하프파이프(HPP) 예선전에서 아오노 료(일본)가 점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남자 핸드볼 쿠바 꺾고 2연승

### 세계선수권, 12강 진출 눈 앞

한국남자핸드볼대표팀이 제2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승을 달렸다.

한국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크로아티아 스피리트 스파라디움 아레나에서 열린 B조 4차전에서 쿠바를 31-26으로 물리쳤다.

쿠웨이트에 이어 쿠바를 꺾고 2승2패를 기록한 한국은 23일 오전 2시30분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스페인과 맞붙어 12강 리그 진출을 가리게 된다. 스페인은 이어 열린 경기에서 홈팀 크로아티아에 22-32로 완패

해 한국과 똑같이 2승2패가 됐다. 한국은 약체로 평가됐던 쿠바를 맞아 초반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패스미스를 연발하는 무거운 몸놀림을 보였다.

3연패를 당해 이미 12강 리그 진출이 멀어진 쿠바는 수비 때 손을 이용해 얼굴을 치는 행위로 한국선수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8-8 동점이던 전반 17분 이재우(일본 다이도스틸·10골)의 골이 터지며 리드를 잡기 시작했고 후반에도 이은호(경희대), 박종규(두산·4골)의 활약으로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 한국 남녀 단체전 4강

주니어 스쿼시대표팀이 제14회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남녀 단체전 4강에 나란히 올랐다.

한국은 21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남자단체전 예선 A조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에 0-3으로 졌지만 3승1패로 조 2위를 차지, B조 1위 인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고 선수단이 22일 알려졌다.

여자단체전에서도 한국은 A조 최종전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하고 3승1패, 조 2위로 4강에 올라 B조 1위 홍콩과 맞붙게 됐다.

한국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대회에 2003년부터 출전해 이번 대회 여자단체전에서 송선미(백영고)가 동메달을 따내 사상 첫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 맨유, 토트넘과 칼링컵 결승

박지성(28)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리그컵대회인 칼링컵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토트넘 홋스퍼와 격돌한다.

토트넘은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버리 터프 무어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십(2부 리그) 소속 버리와 2008-2009 칼링컵 준결승 2차전 원정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7일 홈 1차전에서 4-1 역전승을 거둬 1, 2차전 합계 6-4로 버리를 제치고 결승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맨유는 전날 박지성이 엔트리에서 빠진 가운데 치르 챔피언십 소속 더블 카운티와 홈 2차전에서 4-2(1, 2차전 합계 4-3 승)로 이겨 결승에 선착했다. 결승은 현지시간 3월1일 런던 웬블리구장에서 단판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 탁구 주세혁·석하정 태극마크

남자 탁구 '수비 달인' 주세혁(삼성생명)과 중국에서 귀화한 여자 선수 석하정(대한항공)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주세혁은 22일 강원도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끝난 2009 국가대표 상비군 최종 선발전에서 17승4패를 기록해 전체 1위로 오는 4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2009 세계선수권대회(개인전) 출전권을 얻었다.

주세혁 외에 오상은, 김정훈(이상 KT&G), 윤재영, 이진권(이상 삼성생명), 이정우(농심삼다수), 조연래(상무) 등 6명이 태극마크를 얻었고 조지훈(농심삼다수·14승7패)도 막차로 상비군에 뽑혔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2001년 대한항공 훈련 파트너로 입국했던 중국 출신의 귀화 선수 당에서와 석하정(이상 대한항공)이 나란히 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다. /연합뉴스



- 23일(금)
- ▲전국 유소년 풋살대회(12:40·MBC)
  - ▲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남결승(13:40·MBC)
  - ▲V리그 (한국전력:우리캐피탈)(14:40), <GS칼텍스:흥국생명>(16:40), <현대캐피탈:신협상무>(18:40·KBSN SPORTS)
  - ▲지산 극동컵 알파인 스키(14:50·KBS2)
  - ▲프로농구 <삼성생명:KB국민은행>(16:50), <SK:KT&G·MBCESPEN>(18:50·SBS스포츠), <전지랜드:삼성>(18:50·Xports)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들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국제약품, 건강·수명·행복·영양에 대한 고민, 노년기  
-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 약화  
- 불모, 과로에 의한 각종 만성질환, 노년기 건강  
- 면역기능 저하, 기억력 약화  
- 항노화,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아미노산·비타민·효소  
- 노년기, 노년층

아연의 보충  
- 카로틴(비타민 A) 1000IU